

Millennium, Equistar 처분한다!

참여지분 29.5% 및 향료사업 매각결정 ... 부채탕감 위해 구조조정

Millennium Chemicals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향료(Flavor & Fragrance) 사업 및 Lyondell Chemical과의 합작기업인 Equistar의 지분 29.5%를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Millennium Chemicals은 지속적인 재정악화로 2003년 7월 William M. Landyt 대표 사임 이후 Robert E. Lee가 새로운 대표로 취임하면서 구조조정을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미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전체 직원의 5%에 달하는 약 175명을 감원했다.

Equistar 합작사업은 Millennium 전체 매출 32억달러 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료사업은 2002년 전체 매출의 3%에 해당하는 약 9600만달러를 기록했다.

Equistar 지분 및 향료 사업을 처분하고 나면 Millennium은 앞으로 TiO₂(Titanium Dioxide) 및 Acetyl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Millennium의 2002 TiO₂ 및 Acetyl 사업 매출액은 전체 매출의 각각 36%, 10%에 달했다.

현재 Millennium은 세계 TiO₂ 시장에서 DuPont 다음으로 2위를, Acetyl 시장에서는 Celanese 및 BP의 뒤를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Millennium은 코스트 절감, 현금흐름 개선 및 부채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Millennium의 부채규모는 약 13억달러로 2006년에 총 5억4000만달러 부채를 상환해야만 한다. 따라서 자산처분을 통해 현금을 확보함으로써 부채를 탕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배당금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연평균 약 3500만달러의 코스트를 절감하고 인력감축 등을 통해 약 2000만달러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 자본지출을 1000만달러 축소할 계획이며 몇몇 투자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Millennium은 Equistar 지분매각에 앞서 석유화학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Equistar는 Millennium의 단일 사업체로는 최대규모로 과거 3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으며 장부가치는 5억달러로 파악된다.

향료사업은 Terpene계 향료 화학시장의 메이저 가운데 하나로 몇몇 향료기업 및 투자기업들이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에서만 생산하고 있으나 매출의 60%를 유럽 및 아시아 시장에서 창출하고 있다.

한편, Millennium은 부채를 절감하면 곧 신용등급이 회복되고 다른 2개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2/15>